북한의 환경 인식 변화와 경제정책

이경수(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1992년 기후변화 협약에서 처음 국제연합(UN) 문서에 공식화된 이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 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생물다양성 협약, 사막화방지 협약 등 국제협약에 폭넓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는 매우 논쟁적인 과정을 거쳐 정립되었다. 핵심은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의견 차이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이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면서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발전권'을 주장해 두 그룹간 차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랜 논쟁을 거쳐 환경 파괴 및 기후변화에 대해 선진국의 책임을 더 무겁게 판단해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기술적 역량 차이를 인정하는 원칙이 환경 분야와 개발협력 분야에서 정립되게 되었다.

저개발국 북한의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

북한은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가입하고, 2005년 교토의정서 비준,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 참여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 등으로 국제사회와 환경 분야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7~2021년 유엔기구와 공동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도출에 합의하고 2021년 자발적국별보고서(VNR)을 제출하는 등 S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선진국의 환경 보호와 관련한 이중적 태도와 '녹색장벽'을 비판하면서 환경 규제 강화가 개발도상국에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한 적이 있다. 북한 또한 저개발국의 하나로 경제 성장을 무엇보다 우선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북한에서 환경 담론이 경제적 차원에서 수용되는 양상을 살핀다.

연구방법

텍스트마이닝

김정은 집권 이후 현재까지 공개된 **북한의 대표적 경제학술지『경제연구』**(연 4회 발간)에 게재된 1,356건의 글 중 환경, 녹색, 생태, 저탄소, 순환경제, 재자원화 등 환경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글 61건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해 경제정책에서 환경 논의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파악한다. 경제 학술지에서 환경 관련 논의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고 동시출현빈도를 도출해 환경, 생태, 녹색 개념이 어떠한 단어와 밀접히 연결되어 사용되었는지 확인한다.

김정일, 김정은 시기 서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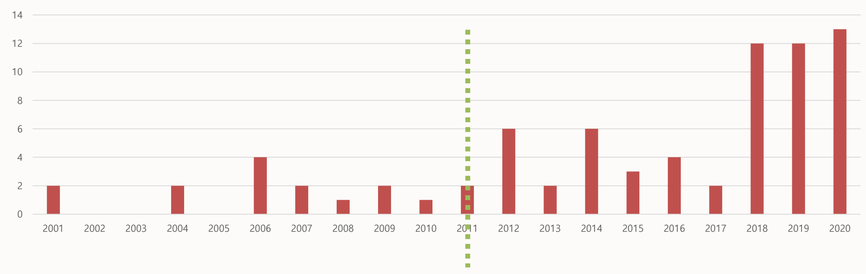
양적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질적 분석을 실시해 문헌 내 김정일 시기의 환경 관련 서술과 김정은 시기의 관련 서술을 비교해 김정은 집권기 환경 인식 변화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 김정은 시기 서술의 특징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환경 주제 글 대폭 증가

2001~2011년 10년간 13개에서 2012~2020년 8년간 61개로 5배 이상 글 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2018년 이후 환경 관련 글이 대폭 증가했다.

『경제연구』 환경 관련 글 개수 (2001-2020)



『경제연구』 연도별 주요 키워드 (2012-202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		환경	환경	환경		발전	경제	재자원화
록색		보호	국제	록색		경제	발전	경제
자원		국제	보호	보호		관광	순환	환경
재자원화				경제		건설	환경	록색
						록색	기술	발전
						생태	상품	건설
						순환	저탄소	계산
						생산		보호

비고: 등장 횟수 순. 일회성 등장은 제외. 자료:『경제연구』각 호, 2012-2020.

'국제·보호'에서 산업 분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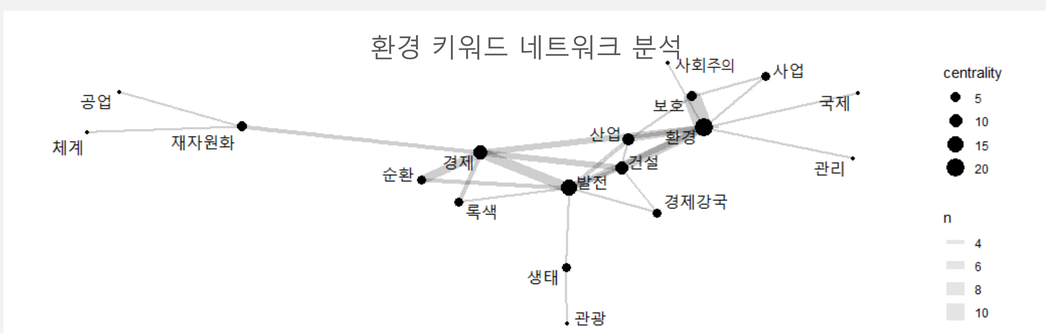
2012~2015년까지 주요 키워드는 국제와 보호로 국제적인 환경 규제 동향을 소개하는 글이 다수를 이룬다.
2016년부터 보호와 경제가 비슷한 빈도로 등장해 경제와의 연관성에서 환경을 논하는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18~2020년 급증한 글에서는 건설업, 관광업 등 산업 분야와 과학기술, 숫자·통계와 관련되어 논의되었다.
같은 시기 순환이 주요 키워드로 처음 등장해 순환경제에 대한 경제적 연구가 등장했다.
2020년에는 재자원화가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으며, 경제체계를 환경과 결부시켜 논의하는 글이 발표되어 환경과 경제를 상호 연관되어 인식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연구결과

발전 → 건설 → 보호

전체 1,478개 단어 쌍 중에서 3회 이상 동시출현한 단어 쌍만 포함해 분석하면 발전 → 건설 → 보호 → 산업 → 순환 → 재자원화 순으로 경제 성장과 관련된 단어가 많다.

한 단어가 연결망 내에서 얼마나 많은 단어와 관계 맺고 있는지 연결중심성이 높은 순으로 파악하면 발전 → 건설 → 보호 순으로 환경 관련 순에서 보호 보다는 발전과 건설에 대한 논의가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고: 원의 크기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선의 굵기는 동시출현빈도(co-occurrence)

'자연 개조'에서 '지속발전'으로

북한에서는 환경을 '자연 개조'의 대상으로 인식하였으며, 환경 오염과 파괴는 자본주의에서 발생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지적했으며,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부당한 환경 규제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글에서는 환경과 개발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담론을 수용하는 언급으로 전환된다.

"**동등한 관계에 있는 개발과 보호**를 다같이 발전시킬 것"
"지속발전은 자연부원을 절약하여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계속 리용할 목적으로부터 제기된 자원 및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경제발전방식으로서 현 세대의 수요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후대들의 수요도 담보"

경제발전 방식의 '녹색' 전환

순환경제, 녹색경제, 환경경제, 저탄소경제를 북한 식으로 정의내리며 **경제의 녹색화**를 추진해 "생태환경을 보호하면서 자원문제를 해결해야 경제발전이 질적 수준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다"고 녹색경제 지향을 분명히 했다.
새로운 경제발전 방식으로 녹색경제를 강조하면서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해 생산공정 전체를 혁신할 것을 주문한다. 나아가 관련 지표와 법규 제정을 통해 순환경제구조, 녹색경제구조를 총적 과제로 제시한다.

요약과 함의

환경과 경제 결합해 논의

김정은 집권 이후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역설한다. 순환경제와 녹색경제 건설을 경제발전 목표로 지향하고 있어 '지향으로서 녹색 전환'을 분명히 했다.

남북 경제협력과 환경협력의 결합

북한의 언급은 아직까지 지향으로 존재할 것이며, 이를 현실화시키는 방향에 있어 남북 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남북 협력에 있어 환경과 경제가 별개로 논의되는 한계를 넘어 녹색 전환을 염두에 둔 양자간 결합 방식이 고민되어야 한다.